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20. 1. 22.(수) 12: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천재호 (044-215-4530)	담당자	최진광 사무관 (044-215-453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장 최우혁 (044-203-4920)		이윤진 사무관 (044-203-4921)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개최
— 포토레지스트 소재 등 개발 현장 방문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 1. 22(수) 10:00 (주)경인양행***(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염료, 포토레지스트용 재료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새로운 제조공법을 통한 반도체·OLED 관련 소재 개발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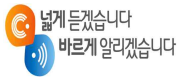
- 금번 3차 회의에서는 총 6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기업간 협력방안과 이에 대한 R&D,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내용인 「제2차 기업간 협력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함

- ❶ 제2차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 ❷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 ❸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
- ❹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 ❺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 한편, 회의종료 후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들은 (주)경인양행의 포토레지스트 합성 반응룸 제조설비 및 클린룸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함

* (합성반응룸) 포토레지스트 재료 생산설비
(클린룸) 합성반응룸 생산 물질을 여과·필터·포장 처리하는 설비

-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안전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지금부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바쁘시고 날씨도 추운데 아침 일찍 이곳 인천까지 와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또한 민간위원으로 새로 위촉되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님 환영함

【'19.4/4분기 및 연간 성장률 관련】

- 먼저 조금 전 지난 한 해 우리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지표인 '19년 4/4분기 및 연간 GDP가 발표되었음.
 -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2%** 성장하고 지난 해 연간으로는 **2.0%** 성장한 것으로 발표 →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내외적으로 이중고가 겹친 상황에서 이는 국민들과 우리 기업들의 절박한 노력과 땀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 '19년 4/4분기 GDP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음
 - ① 첫째, 4/4분기에는 전기대비 **1.2%** 성장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17. 3/4분기(1.5%) 이후 9분기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 GDP 성장률(전기비, %) : ('17.3/4)1.5 (4/4)△0.1 ('18.1/4)1.0 (2/4)0.6 (3/4)0.5 (4/4)0.9 ('19.1/4)△0.4 (2/4)1.0 (3/4)0.4 (4/4)**1.2**
 - 전년동기대비로도 2.2% 성장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되는 모습을 시현(<1/4>1.7% → <2/4>2.0% → <3/4>2.0% → <4/4>**2.2%**)
 - ② 민간부문의 경우 아직 만족할 수는 없지만, 2분기 연속 전기대비 (+) 성장을 이어간 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임
 - * 민간 성장기여도(전기비, %p) : ('18.4/4)△0.3 ('19.1/4)0.1 (2/4)△0.2 (3/4)0.2 (4/4)**0.2**
 - 특히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민간투자가 설비투자 개선 등으로 7분기만에 전기대비 (+)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 민간투자 성장기여도(전기비, %p) : ('18.2/4)△1.5 (3/4)△0.8 (4/4)△0.1 ('19.1/4)△0.2 (2/4)△0.4 (3/4)△0.8 (4/4)**0.5**

- ③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4/4분기중 기확정된 예산중 불필요한 이월 불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난 해 추경규모(5.8조원) 이상의 추가적 경기보완 역할을 잘 수행하였음

* 정부 성장기여도(%p) : [전기비] ('19.1/4)△0.6 (2/4)1.2 (3/4)0.2 (4/4)1.0
[전년비] ('19.1/4) 0.9 (2/4)1.8 (3/4)1.6 (4/4)1.9

□ 한편, 연간 2% 성장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음

- ① 먼저, 전 세계적인 동반 경기둔화(synchronized slowdown)속에서 경제규모가 유사한 국가들중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유지했다고 생각

- 30-50클럽 국가중에서는 2위를, G20 국가중에서는 5위를 기록했음

* '19년 30-50클럽 국가 성장률(% , IMF 전망치, 한국·독일은 실적)
(美)2.3 (韓)2.0 (佛)1.3 (英)1.3 (日)1.0 (獨)0.6 (이태리)0.2

* '19년 G20 국가 성장률(% , IMF 전망치) : (中)6.1 (인도)4.8 (인니)5.0 (美)2.3

- 특히 우리와 유사하게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독일의 경우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위축('18년 1.5%→'19년 0.6%)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선방해 준 것으로 평가

- ② 둘째, 정부가 경기순환적 둔화국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고 생각함

- 작년은 '15~'18년간 이어졌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건설경기 호황이 조정을 받고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라 수출이 10.3% 감소하는 등 우리의 경기둔화 양상이 현저했던 한해였음

- 경제의 핵심주체(player)는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supporter)인 만큼 민간주도의 성장 견인이 가장 바람직함 → 그러나,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재정이 보완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난 해 재정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

- ③ 마지막으로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음

- 그간 시장에서는 2% 달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함께, 2% 미만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음

→ 2%대 성장을 통해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였으며, 향후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

- 전반적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용의 V자 반등, 분배의 개선흐름 전환,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끌어냈다고 생각
 - 이는 국민과 우리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되어 절절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경제흐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경기반등의 모멘텀 확산과 확실한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이는 것임
 - ① 정부는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제2 벤처붐 확산 등을 통해 민간활력과 우리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올인하여 반드시 금년에 2.4% 성장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② 아울러, 근본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경로 자체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산업혁신·노동혁신·공공혁신·인구구조 변화 대응·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에도 각별히 노력

【오늘 소부장위원회 회의장소 의미】

- 이제 오늘의 소부장경쟁력위원회 회의로 돌아오고자 함
 - 금일 소부장경쟁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인양행**은 기업간 협력을 통해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관련 소재 개발을 추진중이며, 새로운 제조공법으로 **불화폴리이미드**의 단량체*(單量體)를 생산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재분야 중견기업임
 - *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 중합체를 합성할 때의 출발물질
 - 이렇게 경인양행이 추진 중인 **첨단 기초소재 확보**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국내 주력산업 활성화**는 물론,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일본 수출규제조치 대응 관련 그동안 여러가지 성과】

- 지난 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민관이 합심하여 신속하게 총력 대응한 결과,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의미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

① 우선,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즉 불산액·EUV 포토레지스트·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공급은 수입국 다변화, 생산확대 등을 통해 일부는 직접 생산에 활용되는 등 공급안정성이 지속 강화중임

- (수입국 다변화) 국내 업계는 미국·중국·호주·유럽 등 수입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불산액·불화수소가스는 이미 생산에 활용중이며, 포토레지스트도 진행중인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공정에 투입할 예정
- (국내생산) 또한, 국내 불산액 생산기업은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는 공장의 신·증설과 수요기업 테스트를 완료하여 수요기업들이 시제품 생산 등에 활용중이며, 불화수소가스, 불화 폴리이미드도 신규공장을 완공하여 시제품을 생산 중임
- (자체기술 확보) 한편, '19년 추경 650억, '20년 1,165억원을 지원하여 포토레지스트 등 25개 핵심품목의 R&D가 진행중이며, 공급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의 생산라인에서 양산평가하는 건수가 150건*에 이르는 등 기업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임

*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평가 130건, CNC 등 기계분야 양산평가 20건 등

② 둘째, 총 2조원 이상 규모의 자발적 민간투자 및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가 구체화되었음

- 효성의 탄소섬유*(19.8월), 현대 모비스의 친환경차 부품**(19.8월) 등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었으며, SK 실트론***, 현대차**** 등은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 인수, 합작법인 설립 등을 진행 중임

* '20년부터 전주공장 추가증설(~'28, 1조원 투자)

** '21년 양산목표로 울산공장 신설(3천억원 투자)

*** SK 실트론,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19.9월)

**** 현대차, 미국 애플티브 테크놀로지스와 Joint Venture 설립 발표('19.9월)

- MEMC, Lam Research, Dupont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 해외기업들도 개발·생산시설 구축 등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① (MEMC) 실리콘 웨이퍼 생산공장 준공(4.6억불 투자)('19.11월)

② (Lam Research) 3대 반도체 장비업체 R&D센터 설립 추진(1.4억불 투자)('19.11월)

③ (Dupont)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구축(2.8천만불 투자)('20.1월)

③ 셋째, 기업의 연구 및 생산활동 애로해소 지원노력도 활발함

- 7개社에 대한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75→30일), 1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1,275명), 3.4조원(1,638건) 규모의 금융지원 등 부처간 촘촘하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강력히 지원해오고 있음

④ 넷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번 정부/민간 대응이 결단코 일회성 단기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대응체계의 제도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

-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이 20년만에 전면개편 되었으며, '20년 2.1조원 규모로 신설된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1.1일부터 본격 운용 중임
- 또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의 컨트롤타워인 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작년 10월 출범 이후, 오늘까지 3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력모델 승인, 제도개선 추진 등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논의 중임

☞ 이 기회를 맞아 2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함

- (1) 일본의 적절하지 않은 일방적인 수출제한조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글로벌 벨류체인(gvc)을 현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함
- (2) 금년에는 3개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공급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음. 아울러,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는 무관하게 100대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21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급안정화를 완수해 나가겠음. 이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임

【금일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에는 4건의 심의안건과 1건의 보고안건이 상정 논의됨

○ 심의안건으로

- ①첫째 제2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 ②둘째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 ③셋째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맞춤형 전략,
- ④넷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상정하고

- 보고안건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이행현황 점검안건을 상정하겠음

심의 ① 제2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 먼저 첫번째 심의안건 「제2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은 총 6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기업간 협력방안과 이에 대한 R&D, 정책자금,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내용임
 - 경쟁력위원회는 지난 제2차 회의를 통해 4건의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들을 발굴하여, 사업내용과 각종 지원방안을 이미 승인한 바 있음
 - 금번 3차 경쟁력위원회에서 논의할 6개 협력사업은
 - ①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포토레지스트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 ②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이차전지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 ③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불소 분야 소재개발 협력사업
 - ④ 미래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 설비개발 협력사업
 - ⑤, ⑥ 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고성능 유압 분야 부품개발 협력사업임
 - 협력방식도 기존 공동 연구개발, 상용화 테스트 등 외에도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과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6개 협력사업을 통해 국내 수요의 40~60% 수준을 생산할 계획으로 '25년까지 투자 0.4조원, 고용 260명 이상 창출이 예상됨
 - 앞으로도 경쟁력위원회는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강력한 생태계 구축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

심의 ②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③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맞춤형 전략

④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 두 번째 안건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임

- 금년에는 ①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②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③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보다 촘촘하게 추진할 계획임
 - ①(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20년 총 1.7조원의 R&D 예산을 통해 100대 핵심전략품목 기술개발을 총력 지원하고, 15개 공공연구소 테스트베드 확충, 25개 출연(연)과 4대 과기원의 기술·인력·인프라의 연계·활용 등 개발·생산 연계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

②(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20개 이상 협력모델 발굴·지원, 100개 특화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굳건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금·세제·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M&A·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며 독일 등 소부장 강국과의 **국제협력도 가일층 강화**할 것

③(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소부장 경쟁력강화의 컨트롤 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 및 규제특례 등에 대한 부처간 협업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것임

□ 세 번째 안건은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맞춤형 전략**」임

- 지난 8월 정부는 부처협의 및 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①**산업 파급효과**와 ②**산업 안보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 바 있음. 그 이후 약 5달 동안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지속해 옴
- 그 결과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00개 품목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안정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음
 - 우선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연구·생산 등 생태계가 조성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상용화 R&D 전략**을 통하여 2~3년 내 조기 상용화에 집중하고
 -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구·생산 생태계가 다소 미흡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등 비R&D 전략과 기초·원천 R&D 전략**을 병행하여 3~5년내 **중장기적 공급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함

□ 네 번째 안건은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임

- 이는 경쟁력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협력사업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절차, 심사내용,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협력사업에 대한 경쟁력위원회 승인 후에 이뤄지는 **본심사 이전에**, 협력사업 내용, 자금수요 종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예비검토 단계를 마련**하여 **본심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예비검토 및 본심사 단계에서 상환가능성 등 재무구조 외에도 **해당 품목·기술의 산업적 중요도 및 기업 성장전략 등이 심사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음

보고 ❶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 마지막으로 1개의 보고안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임
- 지난 1차와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함.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음

붙임 2

각 안전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안전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제2차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시장지원과	최우혁 (044-203-4920)	윤태웅 (044-203-4922)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총괄과	박동일 (044-203-4910)	이선혜 (044-203-4911)
100대 핵심전략품목 맞춤형 전략	과기부	기계정보통신 조정과	서경춘 (044-202-6850)	우명순 (044-202-6853)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가이드라인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02-2100-2860)	김명지 (02-2100-286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시장지원과	최우혁 (044-203-4920)	이윤진 (044-203-4921)